

새로나온 책



▲윤회(김영무 지음)= <달속> 등 인간의 존재양식과 영혼의 구원문제에 초점을 맞춘 20여 편의 화곡 작품을 발표한

중견 극작가 김영무씨(57)의 소설집. 95년 펴낸 <윤회> 상·하 두권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윤회관에 비추어 진솔한 마음자세로 반추해 본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우정기는 얼핏보면 너무나 평범하며 이웃집의 대학생 모습과도 같다.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해답과 사랑의 실체를 찾아 방황하는 대학생의 일상, 방황, 고뇌, 사랑 등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이다. 값 7천5백원.



▲님의 침묵을 읽는 도는 사랑의 노래(유지현 편지)= 만해 한용운님의 시(詩)에 깃든 사랑과 삶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책. 만해 한용운님의 시집 초판본 <님의 침묵>에 실린 시들 중 80여 편을 독자들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제별로 분류, 3부로 구성했다. 특히 각부의 마지막에는 작품의 해설을 수록. 만해스님의 시를 다시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책은 '만해스님의 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편지지는 '알기 쉽게 해설해 놓은 시 읽기의 방법을 통해 만해스님의 시와 같이마디에 얽힌 민족 현실의 고난 속에서 만해스님의 고뇌, 사랑, 그리고 그의 시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값 6천원.

▲다인들은 나를 선이라 하네(김봉호 지음)= "차를 마시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차는 홀로 마시는 것이 으뜸이다. 홀로 마시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하다 공(空)밖에 남지 않는다. 그 공허를 다시 조이면 성찰이 생겨나고 이를 거듭하면 마음과 종교가 일어나지 않아 용서하게 된다." 차(茶)가 곧 선(禪)임을 보여주는 초의선사의 말이다. 회국작가 김봉호씨가 내놓은 <다인들은 나를 선이라 하네>(우리출판사)는 다산삼매를 일깨우는 잔잔한 에세이집이다. 저자가 차를 공부하면서 신문 잡지 사보 등에 고였던 내용으로 차와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 사상, 사회 등의 모든 문제점들이 그윽한 차안에 담겨져 있다. 값 1만원.



▲다인들은 나를 선이라 하네(김봉호 지음)= "차를 마시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차는 홀로 마시는 것이 으뜸이다. 홀로 마시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하다 공(空)밖에 남지 않는다. 그 공허를 다시 조이면 성찰이 생겨나고 이를 거듭하면 마음과 종교가 일어나지 않아 용서하게 된다." 차(茶)가 곧 선(禪)임을 보여주는 초의선사의 말이다. 회국작가 김봉호씨가 내놓은 <다인들은 나를 선이라 하네>(우리출판사)는 다산삼매를 일깨우는 잔잔한 에세이집이다. 저자가 차를 공부하면서 신문 잡지 사보 등에 고였던 내용으로 차와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 사상, 사회 등의 모든 문제점들이 그윽한 차안에 담겨져 있다. 값 1만원.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원호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 “석굴암은 참회-화쟁의 집”

## 성낙주씨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 창건동기-주제 분석 “호국사찰 아니다” 결론

기존 미술학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석굴암 읽기를 시도한 이색적인 '석굴암론'을 담은 책이 나왔다. 성낙주씨(45·서울 노원중고교사)의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개마고원 펴냄). 경주 토함산 석굴암은 세계적인 보배 등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 학자들에 의해 조명됐을 뿐 석굴암을 창건한 동기와 주제, 미학적 특징 등은 여전히 신비에 싸여 있다.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은 1200여 년 동안 역사의 배설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의 한가락을 벗기려는 총체적 읽기를 시도한 책이라고 할만하다. 대학시절부터 석굴암에 매료돼 20여 년 동안 꾸준한 연구로 석굴암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저자는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역사를 파헤쳐 가며 석굴암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먼저 석굴암의 창건 동기와 주제에 대해 '국가나 왕실 주도로 이뤄진 호국사찰도 기복사찰도 아니다'라고 기존 학설을 반박한다. 석굴암은 김대성 개인의 비원을 담은 원찰, 즉 참회(화쟁)의 집이라는 것이다.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에 석굴암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왕실개입설을 부정하고, 김대성 독자 건축설을 주장한다. 저자는 '김대성 설화를 재해석해 지방에서 자주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토벌한 뒤 참회의 심정으로 절을 지었다고 보고 있다. 또 <불국사>금강(전2권·열림원 펴냄)을 비롯하여 '대화엄종 불사' '아미타불상'을 찬양'을 예로들어 어디에도 왕이나 왕실의 참여가 없으며 독자 건축설을 주장한다. 또 참회와 화쟁의 집이라는 사실을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석굴암 본존불을 둘러다 본 모습

석굴암의 동형 지붕을 덮고 있는 세 조각의 천개석이다. 당시 고구려·백제 유민을 아우르며 통일전쟁의 후유증을 화해와 통합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고뇌가 김대성을 통해 승화된 상징물로 보

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백조를 비추기 위해 돌지붕 위에 만들었다는 광창(光窓)에 대해서도 의의를 단다. 엄청난 무게의 압력과 흙, 기왓장이 덮여 있는 석굴암의 건축구조상 창을 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목조전실에 대해서도 조각상 보호를 위해서 또는 예배처라는 석굴암의 성격상 목조전실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존재 유무를 떠나 다루는 석의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목조지붕 양식의 원형을 복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책은 미학적 차원에서 그동안 학계가 살피지 못한 석굴암의 건축사적 의의를 파헤치고 있다. 성낙주씨는 "석굴암 일부 조각상의 명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것이 석굴암연구의 실상이다"고 지적하고 "편견을 거두는 열린 자세를 통해 석굴암학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값 1만2천원. 김준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온 벽안의 스님



## 현각스님 '만행...' 펴내

지난해 TV 타구멘터리 <만행>으로 널리 알려진 벽안의 선승 현각스님(35)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진리를 찾아 정진해온 이야기를 담은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전2권·열림원 펴냄)를 내놓았다. 이 책에는 현각스님의 어린시절부터 승산스님을 만나 스님이 되기까지, 그리고 외국인 수행자로서 느끼는 불교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어린시절 종교적 전통을 강하게 고수해온 집안에서 자란 불교관은 '진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말을 따라 진

리를 찾아 한없이 고민하던 시절, 그가 다닌 교회와 학교는 그에게 또 다른 의문과 회의의 물 안겨주었을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2월 어느날 하버드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저자는 승산스님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가 품었던 의문들의 해답이 승산스님의 어눌한 영어 강연속에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유명 대학에서도 찾기 못했던 '진리'가 바로 선(禪)안에 있었던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와 쇼펜하우어를 통해 신과 종교에 대해 고민하던 청년 불교관은 이렇게 해서 현각스님으로 다시 태어나 구도생활을 시작한다. 가정, 종교, 명문대학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이역만리 한국땅을 어떻게, 왜 밟게 됐는지를 실타래 풀듯 하나씩 풀어간다. 값 7천원.

## 임제록 강의 불교와 사회

### '이기영전집' 2권 출간



故 불연 이기영 박사의 저술을 집대성하고 있는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불연이기영전집' 가운데 11권 <불교와 사회>와 30권 <임제록 강의 1·2>를 펴냈다. <불교와 사회>는 60년부터 76년까지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쓴 글들로 77년 출간됐던 것을 전집형태로 재간한 것이다. '불교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이박사의 신념이 녹아 있다. 1부 '불교와 한국적 영원'에는 한국불교 근대화의 제과제, 한국불교 내일을 위한 좌표 등이, 2부 '불교의 사회윤리'에는 불교사회윤리 원론, 바람직한 사회윤리, 불교에서 본 사회현장 등이 수록돼 있다. (임제록 강의)는 93년부터 94년까지 한국불교연구원에서 1년 여동안 <임제록>에 대한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임제스님의 어록을 이 박사는 평소 신념인 원효사상에 입각한 자신의 불교관을 바탕으로 명쾌하면서 특유의 활달한 언어로 해석하고 있다.

## 불보살 향한 시어 가득 김용주 시집 '그대에게 이르는 길'

여류시인 김용주씨(60)가 20년만에 시집 <그대에게 이르는 길>(신구문화사 펴냄)을 손에 쥐었다. 이 시집의 시들은 서정시 이전에 불법이 녹아 있는 신앙시다. 경전을 읽으며 돈독한 신심을 해 온 시인의 마음속 정화가 작품 진면에서 드러난다. 대체로 여류시인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잡상을 시화하는 경향인 데 비해 김시인의 신앙적 주제가 있는 이 작품들은 한결 돋보인다. '그대 등에 서린 일념/ 일배 이배 삼배 올려/ 그대 마음 주름펴고/ 천수경 반야심경/ 남남하게 울려 퍼져/ 우리 모두 눈물되어/ 허공 가득 달여있는/ 먹장 구름 걷어내고/ 밝은님 뵈오리다.' (<그대에게 이르는 길 2' 중에서)

시인 조병화씨는 "김시인은 자신의 참모습을 불법의 하늘에서 찾고 있는 심경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값 5천원.

##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여식인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풍경	원성	이레
2	금강경강해	김용욱	통나무
3	달라이라마가 설명한...	류시화	나무심네
4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각	열림원
5	방편개시	대성	여식인집
6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	우리
7	영가천도	우룡	효림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일타	불교시대사
9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10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인호	여백

구입문의: (02)737-0695

사찰·신행단체·계모임 등에서 떠나시는 해외성지순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외여행업허가번호 42-109

**선재여행사(善哉旅行社)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명상보하옵고,  
월간 『법공양』을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해외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선재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여행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있고 신행이 깃든 순례, 우리나라와 해외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면서 심도있게 살펴보고 참여하고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음미해 보는 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떠나는 사찰 단위의 해외성지순례, 불교단체 및 계모임에서의 성지순례에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양망하오며,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인도·중국·일본·미얀마·티베트·네팔·태국·스리랑카 등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배상

**감동과 신행·품격이 있는 성지순례 - 저희 善哉여행사와 함께 하십시오.**

**달라이라마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9일 ₩2,000,000**  
출발일 - 12월 12일 (단, 1회에 한함)  
델리-기원정사-말미차 쿠시나기르-제 2감정시 바이살라-나란다대학-라지기르, 영축산, 속림정사-성도지 보드기아 (달라이라마 친견)  
-초전법륜지 녹아원, 사르나트-바라나시(겐지스강)-델리 (특급호텔이용)

**인도 성지순례 9일 ₩1,900,000**  
출발일 - 1월 23일  
델리-이그라-기원정사-룸비나-쿠시나기르-바이살라-나란다-라지기르-보드기아-사르나트-바라나시-델리 (특급호텔이용)

**인도 성지순례 9일 ₩1,570,000**  
출발일 - 11월 28일  
델리-이그라-기원정사-룸비나-쿠시나기르-바이살라-나란다-라지기르-보드기아-사르나트-바라나시-델리 (일반호텔이용)

**인도·네팔 성지순례 16일 ₩2,780,000**  
출발일 - 1월 11일  
불교 8대성지, 신지대탑·아산타·엘로리석굴 및 히말라야 일출·카트만두·포카라 등 네팔 주요 성지 탐방 및 주요 불교성지 총망라

**일본 성지순례 5일 ₩1,370,000**  
출발일 - 12월 15일  
오사카-나라-고야산-교토 (법동사·광릉사 등 17개 사찰 및 유명관광지)

**미얀마·태국·스리랑카 성지순례 11일 ₩2,334,000**  
출발일 - 12월 3일, 1월 14일  
방콕-영곤-비간-만달라이-영곤-방콕-콜롬보-이누라다푸라-히바리나-폴론니루와-시기리아-맹볼라-캔디-콜롬보-방콕 (총 24개 성지탐방)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80,000**  
출발일 - 12월 3일, 1월 14일  
방콕-영곤-비간-만달라이-영곤-방콕 (총 15개 성지탐방)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1,310,000**  
출발일 - 12월 8일, 1월 19일  
방콕-콜롬보-이누라다푸라-히바리나-폴론니루와-시기리아-맹볼라-캔디-콜롬보-방콕 (총 9개 성지탐방)

**중국 상해·보타산·항주·소주 6일 ₩920,000**  
출발일 - 11월 28일, 1월 4일  
상해 옥불사·용화사·관음성지 보타산-영파 아육왕사·진동사-항주 서호심경·영은사·비례봉 석불동굴-소주 한신사·호구·졸충원-상해

**중국 북경 성지순례 5일 ₩680,000**  
출발일 - 12월 9일, 12월 22일  
박운사·외불사·법해사·운기사·법원사·대종사·법운사 등 북경의 고찰 순례와 만리장성·이화원·천안문 등 관광

◆출발조건 : 국제선 항공료, 현지 국내선 항공료, 호텔, 현지차량, 식사, 현지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공항세, 관공세, 1억원 보상한도 보험료, 각종 비자비 포함(단, 여권인지대는 별도), 선택관광 및 팀은 일체 없습니다.

**善哉! 종교 및 종교니, 좋은 것 뿐이로니.** 선재여행사 전화 : 02-582-6647~9 · 팩스 : 02-586-9078